

# 윤장현 전 시장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될 듯

### 2차 검찰 조사 '공천 대가성' 여부 추궁...법정에서 가려질 듯 윤 전 시장, 채용 청탁 일부 인정...선거법 위반은 강력 부인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청탁까지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검찰에 출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정

사기범 김모(여·50)씨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268회)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채용청탁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지검에 재 출석한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사기범 김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게 공천 대가라면 은밀하게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는) 수억원을 내 이틀로 대출받아 버섯이 내 이름으로 송금했다. 당시 사기범을 권양숙 여사로 알고 '자식 문제로 사정이 어렵다며 몇개월만 빌려달라'고 해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준 것 뿐"이라고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다만 사기범 김씨의 아들(28)과 딸(30)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 모 사립중학교에 취업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윤 시장은 또 이날 취재기자들을 만나 불출마 선언 후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 지에 대해서는 "입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갚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초 민주당 광주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와 6월13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등 두 차례에 걸쳐 권양숙 여사 사정

사기범에게 "생활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돌려달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윤 전 시장측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느냐를 놓고 맞서는 것은, 시점 등을 종합할 때 공천 대가 여부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시장의 한 측근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김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일부만 공개해 마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천이 무산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주차장 입구 막은 음주운전자 경찰 신고한 이웃 폭행까지

광주서부경찰은 11일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린 박모(66)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정모(32)씨의 가슴에 수차례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자가용에 앉아 있던 중 "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빼달라"는 세입자 정씨의 요청에 1m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씨는 박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고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박씨는 정씨를 폭행했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차량 매연 특별단속 환경부, 2000여대 적발

환경부가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2000여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뤄졌다. 환경부는 경유차 35만여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7만여대 등 총 42만2667대를 점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차량 1211대 등 1918대를 적발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자치단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1일 오전 7시40분께 장흥군 장동면 남해고속도로 장동 2터널 인근에서 트럭과 승용차들이 방판길에 미끄러져 연속 충돌하며 뒤엉켜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새벽 눈에 교통사고 속출...광주·전남 하루 43건

장흥 고속도 17중 충돌사고 등 '블랙아이스' 현상 원인인 듯

11일 새벽에 내린 눈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장흥군 장동면 인근 남해고속도로 장동 2터널(영양 방향 49km 지점) 인근에서 17중 충돌사고가 일

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1t트럭이 앞서가던 5t트럭 뒤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서로 들이받으며, A(51)씨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전 7시30분께 화순군 너릿재터널 인근 화순방면 도로에서도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해 B(13)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11시20분께도 화순군 이양면 편도 2차선 능주방면 도로에서 C(72)씨가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며 뒤따르던 차량 7대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등 5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광주 1건, 전남 42건이었다.

경찰은 이날 출근 길에 속출한 교통사고에 대해 녹은 눈이 아스팔트에 스며들어 어는 '블랙아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결빙)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상훈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광주·전남 일대 아침에 내린 눈과 진눈깨비가 얼며 지나는 차량이 미끄러져 연쇄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겨울철에는 밤이나 새벽에 비나 눈이 올 경우, 적은 강수량이라도 도로가 결빙됐을 가능성이 대비한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동료에 흉기 휘두른 선원 구속

목포해양경찰은 11일 배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동료선원을 다치게 한 A(52)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목포시 북항 인근 해상에서 정박해둔 통발어선(21t)에서 동료선원 B(45)씨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동료 선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김사복 빨갱이' 발언 지만원 입건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부른 극우 인사 지만원(76)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11일 서울방배경찰청에 따르면 지씨는 5·18 참사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힌츠페터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 씨에 대해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힌츠페터가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지난 6월 김사복씨의 아들 승필(59)씨가 고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택배노조 파업 철회

광주 택배노동자들이 11일 파업을 풀고 택배물 집하·배송에 들어갔다. 1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광주지부와 현장부기 및 집하금지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업무 정상화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회와 함께 CJ대한통운측에 ▲노조 인정 ▲노사 단체교섭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사측에 노조 인정과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측은 조합원 5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해 업무 정상화와 별개로 양측 관계가 조속히 회복할 지 주목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 방수 부분설비(누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